

“삼성 팬 이었는데, 이젠 KIA 팬 할래요”

KIA, 더블헤더 후 휴식 반납
선수협 유소년 야구 클리닉 개최
수창초·김천시리틀 등 100여명
나성범 등 파트별 눈높이 지도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더블헤더로 인한 피로에도 유소년 선수들을 위해 휴식을 반납하고 야구장에 나섰다. 일일이 공을 주고 받고 대화를 나누며 유소년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 적극적인 스킨십을 시도하는 모습이였다.

KIA 선수단과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 선수협회는 지난 13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유소년 야구 클리닉 ‘두드림(DODREAM)’을 개최했다. 이날 클리닉에는 수창초와 학강초, 화정초, 광주서구유소년을 비롯 전주유소년과 김천시리틀 등 100여명의 유소년 선수가 참가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 시즌 종료 후 진행됐던 유소년 야구 클리닉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으나 지난해 재개됐다. 각 구단마다 25명의 선수와 100명의 초등학교 4~6학년 선수들이 참가한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난 1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유소년 야구 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다.

다. KIA 선수단은 현재 한국프로야구 선수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주장 나성범을 필두로 운영철과 최지민, 장현식, 정해영, 김태군, 한준수, 박찬호, 김도영, 최원준, 이우성 등이 휴식을 반납하고 운동장에 나왔다. 전날 더블헤더로 7시간 넘게 경기를 치

르면서 선수들에게 휴식일이 간절한 상황이었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유소년 선수들과 소통에 나섰다. 스트레칭과 워밍업부터 캐치볼, 각 파트별 지도까지 이뤄졌고 클리닉 종료 후에는 애장품 추첨 행사도 진행됐다.

각 파트별 지도에서는 선수단이 유소년 선수들의 눈높이에 맞춰 운동 방식을 설

명하는 등 지도가 이뤄졌다. 투수조 만형인 김건국은 유소년 선수들에게 필요한 스트레칭 방법을 직접 전수했고, 주장 나성범은 외야 수비와 타격 지도에 나섰다.

박찬호와 김도영도 나란히 내야 수비와 타격 지도를 위해 그라운드에 올랐고 김선빈은 직접 평고를 치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심재학 단장과 이범호 감독이 깜짝

등장해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나성범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이사로서 이번 유소년 야구 클리닉을 총괄해야 해 굉장히 바쁘다”면서도 “아들 또래 초등학생 선수들을 보니 아버지 같은 마음이다. 묻는 말에 열심히 대답해 주고 사인도 열심히 해주고 있다”며 웃었다.

KIA 선수단의 적극적인 스킨십에 유소년 선수들도 꿈과 희망을 얻어 가는 모습이였다.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장비를 챙겨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족 모두 미소가 가득했다.

임서윤군(김천시리틀)은 “떨리긴 했지만 KIA 선수들에게 클리닉을 받으니까 기쁘고 좋았다”며 “박찬호 선배님이 쳐주시는 내야 평고도 받고 이우성 선배님이 당첨된 유니폼에 선수들 사인도 다 받게 해주셨다. 삼성 팬이었는데 앞으로 KIA 팬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시아양(광주서구유소년) 역시 “운영철 선수와 볼펜 피칭을 했는데 공 그립 잡는 방법과 투구 폼을 알려주셨다. 배운 대로 하니 스트라이크 존에 잘 들어와 기뻐다”며 “선수들이 중계로 보는 것보다 훨씬 잘 생겼 것 같고 모자도 선물로 주셔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글·사진·한규빈 기자



KIA타이거즈 나성범이 1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5차전 3회말 1사 1루에서 역전 투런포를 터트린 뒤 야구 선수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3안타 4타점’ 나성범, KIA 선두 지켰다

두산에 8-4 역전승

지난주까지 시즌 타율 8푼에 그치며 5번 타수로 내려가 타격감을 가다듬은 KIA타이거즈 나성범이 3번 타수에 돌아와 홈런포를 포함 4타점 맹타를 휘두르며 단독 선두 수성에 큰 힘을 보탰다.

나성범은 1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5차전에서 홈런포를 포함 5타수 3안타로 4타점 1득점을 쓸어담는 맹활약으로 KIA의 8-4 역전승을 이끌었다.

KIA는 이날 승리로 올 시즌 26승 16패(승률 0.619)를 기록하며 2위 NC다이노스(24승 17패·승률 0.585)와 1.5경기 차를 유지했다. 또 최근 잦은 루징 시리즈로 위협했던 6할 승률을 지켜냈다.

전날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1안타에 그쳤으나 첫 타석에서 추격의 투런포를 쏘아 올리며 타격감을 조정했던 나성범은 이날 다시 3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배치됐다.

나성범은 0-0으로 맞선 1회말 1사 1루에서 첫 타석에 들어서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났지만 0-1로 뒤진 3회말 1사 1루에서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서 상대 선발 최원준의 4구째 129km 슬라이더를 공략해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25m의 홈런포를 가동해 2-1 역전을 만들어냈다.

이어 2-1로 앞선 4회말 2사 만루에서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며 4-1까지 격차를 벌렸고, 5-3으로 앞선 6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안타를 기록한 뒤 7-4로 앞선 8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2루수 땅볼을 쳤다.

KIA 타선은 8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최형우가 썩기 우월 솔로포를 터트리며 8-4로 격차를 벌리는데 성공했고, 나성범은 9회초 시작과 함께 대수비 박정우와 교체돼 경기를 마쳤다.

나성범이 3회와 4회에 4타점을 쓸어담으며 리드를 잡은 KIA는 살얼음판 리드를 지키며 승리했다. 선발 등판한 제임스 네일이 5이닝 3실점을 기록한 뒤 파도규가 1.1이닝 무실점으로 분위기를 이었고, 장현식이 0.1이닝 1실점에 그쳤으나 최지민과 정해영이 각각 1.1이닝과 1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졌다.

한규빈 기자

‘천연잔디 2면 재조성’ 광주축구센터, 팬들이 직접 점검 나섰다

광주FC, 공사 현장 방문 행사

광주FC 팬들이 새 단장 중인 광주축구센터 공사 현장 점검에 나섰다.

광주FC는 지난 14일 노동일 대표이사와 임근훈 경영본부장, 이부호 광주시 체육진흥과장과 팬 11명이 광주축구센터 공사 현장 방문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사 진행 현황과 변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브리핑이 이뤄졌다.

광주축구센터는 조성 과정에서 배수 시설이 불량해 장마 기간마다 잔디가 과사하는 등 열악한 훈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공사를 추진했고, 올해 2월13일부터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첫 삽을 떴다.

특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운동장 배수 시설을 기초부터 다시 작업했고, 관수 시스템도 최신화해 원격 살수가 가능한 시설을 갖췄다. 또한 천연잔디 2면을 모두 새 잔디로 교체했고, 조명탑 6기를 새로 설치해 야간 훈련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19회 전남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오늘부터 완도서 열린다

게이트볼 등 2300여명 참가
경북 선수단과 우호 교류도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체육 한마당잔치인 ‘제19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이 16~17일 이틀간 ‘해양치유도시’ 완도에서 열린다.

전남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남생활체육대축전조직위원회와 종목단체가 주관하는 이번 대축전에는 전남 22개 시·군과 경북 생활체육교류단 등 약 23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과 우호를 다지



광주FC가 지난 14일 광주축구센터에서 팬들과 함께 전용 훈련장 재조성 공사 현장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FC 제공

인조잔디 1면이 사라지며 발생할 수 있었던 U-12와 U-15 유소년 선수들의 훈련장 문제는 용산생활체육공원과 효천축구장으로 각각 베이스캠프를 옮기며 해결했다. 또 기존 광주축구센터의 인조잔디를 효천축구장에 재활용 설치해 예산 절감 효과도 거뒀다.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는 “팬 여러분의 쓴소리를 자양분 삼아 보다 발전하는 구단이 되고, 더 좋은 환경으로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며 “시민

에게 믿음을 주고 팬들에게 사랑받는 광주FC가 되겠다. 경기장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식 광주FC 서포터즈 빛고을 회장은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광주FC는 우리만의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면 최고의 구단과 최고의 서포터즈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규빈 기자

게 된다. 대회 개최식은 16일 오후 2시 완도 청해진스포츠펀터에서 열린다. 참가 어르신들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체조, 소프트테니스(이상 청해진스포츠펀터 일원), 산악(상왕산), 궁도(청해정), 탁구(고금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고금파크골프장) 등 9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이번 대회에는 김점두 경북도체육회장을 단장으로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등을 비롯한 6개 종목에 80명의 경북 생활

체육교류 선수단도 참가한다. 경북선수단은 해양치유센터 문화탐방 등 스포츠와 문화교류를 통해 영·호남 우의를 다진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은 물론, 영·호남이 하나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남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